

사람들의 용인

文化 용인문화재단  
Yongin Cultural Foundation

제7회 동서악회 정기연주회

The 7th Annual Concert : The Society for East-West Music

우리가락 project 일곱 번째

# 현대음악과 춤으로 풀어낸 경기12잡가

Gyeonggi 12 Jangga with Contemporary Music and Dance - Chunhyang's Love Song



# 춘향연가

해설 : 김성욱

2017년 9월 19일 (화) pm 7:30 용인포은아트홀

주최·주관 (재)용인문화재단  동서악회(The Society for East-West Music) 후원 KOCOA (사) 한국작곡가협회·우리가락교육연구회

전석 초대

공연문의 : 용인문화재단 031-260-3355/3358



청명한 가을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문화와 예술을 즐기고자 오늘 공연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용인! 문화예술의 용인은 많은 예술인들이 활동하며 행복과 공감을 만들어내는 도시로 발돋움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연을 준비한 동서악회는 우리의 전통예술과 현대예술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창조하는 작업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예술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12잡가 <춘향연가>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에 현대음악과 춤을 입힌 작품이어서 더욱 관객들의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현대적인 작품이나 관객 여러분께서는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공연을 함께 해주신 미국 University of South Florida 무용과 Jeanne Travers 교수님, 동서악회 이복남 회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무대를 완성하기까지 수고하신 모든 출연진과 여러 스태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용인문화재단 이사장 / 용인시장  
정 찬 민



누구나 시인이 된다는 이 가을의 문턱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7회 동서악회 정기연주회를 갖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서양의 시대를 아우르며, 전통과 현대를 교류시켜 이 시대의 새로운 음악을 창조하는 동서악회가 올해는 <우리가락 Project 일곱 번째 시리즈 “춘향연가”>로 특별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오늘 음악회는 경기12잡가를 주제로 하여 민요, 판소리 등 다양한 소재와 장르를 도입한 새로운 표현방법으로 재탄생시킨 완성도 높은 곡들로 이루어집니다. 경기12잡가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 지방의 토속 민요로서 1975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로 지정 받은 예술적 가치가 높은 음악이지만 큰 규모와 긴 형식으로 12곡 전체가 연주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다른 전통음악에 비해 공연의 빈도수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경기12잡가 중 다수의 내용을 담고 있는 춘향의 사랑노래를 빌어 12분의 동서악회 작곡가들이 형식과 규모에 얽매이지 않은 현대적 어법으로 각자 1곡씩 작곡하였습니다. 새로운 옷을 입고 선보이는 소리와 더불어, 미국의 안무가 Jeanne Travers가 엮어내는 현대무용과 재미있는 국악 해설이 여러분을 색다른 소리와 춤의 공간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의 공연이 가능하도록 애써주신 (재)용인문화재단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훌륭한 작품을 써주신 작곡가, 항상 열심히 좋은 연주를 해주시는 연주자, 그리고 이 공연을 준비하시느라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더불어 오늘 음악회에 오신 모든 분들의 가슴에 감동과 즐거움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동서악회 회장 이 복 남

## 1, 가락타고 흐르는 소리굿 &lt;집장가&gt;

작곡 / 길석근 초연

Vocalical exorcism flowing through melody &lt;Jibjang-ga&gt;

장구/최영아, 이복남, 김은혜, 이필경 타악/이유정 민요/김진찬

무용/찢어지는 가슴 (Conflicted Heart) : Choreography by Jeanne Travers and Gabriella Olsen  
(Performed by Gabriella Olsen)

집장가는 판소리 춘향가중 한 대목으로 집장사령이 형장(形杖)을 다루는 모습과 춘향이 엄형을 당하는 형상등을 표현한 것으로 점4분 6박 한 장단 으로 이루어지는 경기잡가의 한국이다. 본 연주에서는 경기도당굿 장단 <터벌림.진쇠.발빼드레>, 경기웃다리농악 장단 <칠채.육채>를 가지고 설장구 4대를 사용하여 가락의 혼돈속 춘향의 한을 그리며 다양한 가락을 타고 집장가는 흐른다.

## 2, 소금,대금,아쟁을 위한 “사랑, 그리고 이별” &lt;소춘향가&gt;

작곡 / 심유주 초연

“Love, and Farewell” for Sogeu, Daegum and Ajaeng &lt;Sochunhyang-ga&gt;

소금/김규환 대금/김백만 아쟁/ 박영신

12잡가 중 하나인 <소춘향가>는 판소리 ‘춘향가’중에서 이도령이 춘향이에게 집을 물어보고, 서로 사랑하게 되며, 이도령이 떠난 후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는 대목이다. 이곡은 이도령의 애절함을 대아쟁으로, 이도령을 향한 춘향이의 마음은 소금과 대금의 선율로 흘러간다. 이도령과 춘향이의 만남과 사랑, 이별, 이별 후의 더없는 외로움과 사무치는 그리움을 표현해 보았다.

“우는 눈물 받아 내면 배도 타고 가련마는 지척동방 천 리라고 어이 그리 못 오던가” <소춘향가>중에서

## 3, 첼로 솔로를 위한 &lt;선유가&gt;

작곡 / 이진우 초연

&lt;Seanyuga&gt; for Cello solo

첼로/이기훈

선유가는 경기의 전승되어온 12잡가 중 한 곡이다. 전래되어온 12잡가중 비교적 복잡한 선율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선유가를 소재로 현대화된 선율을 만들고자 함에 최적의 악기를 첼로로 선택하였다. 이는 첼로는 악기로서의 역할이 선율의 기초적인 내재선율을 담당하는 악기였으므로 이는 선유가의 선율을 변화시키는데 외형적인 것 보다는 내재적인 변화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선택한 악기이다. 전체 선율의 구조가 C/ABAB ABAC ABAC, “가세 가세 자네 가세 가세 가세 놀러 가세, 배를 타고 놀러 가세 지두덩 기어라 동계동덩덩실로 놀러 가세.”라는 후렴구를 C라 하면 A와 B선율이 주 선율이 된다. 따라서 ‘선유가’가 지니고 있는 형식은 변화된 RONDO형식과 같으므로 Cello Solo by Seon-Yu-Ga는 원곡의 형식의 내적인 구조를 토대로 변화된 첼로를 위한 선율을 완성하였다.

## 4, 대금, 해금, 첼로 그리고 춤을 위한 “美” &lt;유산가&gt;

작곡 / 김수혜 초연

“La beauté” for Daegum, Haegum, Cello and Dance &lt;Yusan-ga&gt;

대금/ 김규환 해금/신숙경 첼로/이기훈

무용/땅의 소망 (Earth Wish) : Choreographed by Jeanne Travers and Lisa Roll (Performed by Jeanne Travers)

“유산가”는 경기 12좌창 중의 하나로 12가사 중 우두머리에 속한다고 할 정도로 널리 불리어지고 있는 작품이다. 우리나라 금수강산의 무궁한 아름다움을 중국 명승지에 견주어 가며 절찬한 내용으로 엮여져 있다. 되풀이되는 마루가 많고 4분의 6박자의 도드리장단과 목 쓰는 법 등 가사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특징이며, 전반과 후반이 각기 7마루씩 14마루 81장단으로 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주요 주제선율을 유지하며, 대금과 해금 그리고 춤을 첨가하여 새롭게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재해석 하였다.

## 5, 소아쟁과 타악을 위한 “연자연가” <제비가>

작곡 / 최영아 초연

“Yeonja-yeonga” for Ajaeng and Percussion <Jebi-ga>  
소아쟁/이신애 타악/이유정

이 작품은 경기 12잡가 중 ‘제비가’를 모티브로 작곡하였다. 원곡 사설 내용은 남도잡가 ‘새타령’, 판소리 ‘춘향가’ 중 이별가와 판소리 ‘홍보가’ 중 제비 후리러 나가는 대목의 일부분 등 여러 장르의 사설들이 부분적으로 조합되어 구성되어 있으나, 이 작품에서는 원곡 사설의 내용 중에서도 이별의 아픔, 헤어진 임에 대한 그리움과 추억, 재회를 꿈꾸는 희망을 노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악상을 전개하였다.

## 6, 소리, 대금, 25현금, 타악기와 춤을 위한 “사랑노래” <평양가>

작곡 / 이복남 초연

“La Mélodie d'Amour” for Sori, Daegeum, Gayageum, Percussion and Dance “Pyeongyang-ga”  
민요/최수안 대금/문응관 25현금/이해정 타악/길석근  
무용/사랑듀엣 (Love Duet) : Choreographed by Jeanne Travers (Performed by Robert Kelly and Gabriella Olsen)

“사랑노래”는 경기12잡가의 하나인 “평양가”를 소리와 대금, 국악타악기, 25현금과 2인의 무용수를 위한 작품으로 재구성하였다. 원곡인 “평양가”의 가사는 부모 동생 다 버리고 둘이 갈까하는 잔잔하고 애절한 임과의 사랑과 평양 기생 월선이 집에 놀러 가자는 한량가의 노래를 그리고 있다. “사랑노래”는 하나의 선율이 계속 반복되는 “평양가”의 유절형식의 구성을 살려 전체적으로는 대조적인 성격의 2부 형식으로 이루어지지만 하나의 주제가 국악 장단에 따라 분위기를 바꿔 계속 변주하는 원리로 통일감을 주었다. 전반부는 혼한 변박으로 임과의 사랑을 그렸고 후반부는 불이 난 평양 성내(굿거리풍), 밀고 당기는 남녀의 뜨거운 사랑(세마치풍, 휘모리풍)을 가사의 느낌을 살려 흥겹게 표현하였다.

## 7, 판소리, 피리, 타악기를 위한 <출인가>

작곡 / 정현수 초연

“Choolin-ga” for Sori, Piri and Percussion  
소리/김소라 피리/연흥관 타악/최영진

평조를 기본으로 사용하며, 느린 6박장단 도드리와 빠른 변형 4박장단 타령의 <제1마루+후렴+제2마루+후렴+제3마루>의 원곡에서 각 마루의 부분 부분 가사를 생략함으로써 길이를 축약하여 구성하였다.

(꽃추절이김치 문어 전복 곁들여 황소주 꿀타 향단이 들려 오리정으로 나간다 오리정으로 나간다.)  
(어느 년) 어느 때 어느 시절에 다시 만나 그리던 사랑을 품 안에 품고 사랑사랑 내 사랑아 에 어화동개 내 건곤  
이제 가면 언제 오노 오만 한을 일러 주오 명년 춘색 돌아올 오면 꽃 피거든 만나 볼까  
놀고 가세 놀고 가세 너고 나고 나고 너고만 놀고 가세  
곤히 든 잠 (행여나) 깨울세라 등도 대고 배도 대며 (찢래찢래 흔들면서 일어나오 일어나오) 겨우 든 잠 깨어  
나서 눈떠보니 (내) 낭군일세  
그리던 입을 만나 만단정회 채 못하여 날이 장차 밝아오니 글로 민망하노매라  
놀고 가세 놀고 가세 너고 나고 나고 너고만 놀고 가세  
(오늘 놀고 내일 노니 주야장선에 놀아 볼까)  
인간 칠십을 다 산다고 하여도 밤은 자고 낮은 일어나니 사는 날이 몇 날인가

## 8, 대금과 타악을 위한 “이별선물” <방물가>

작곡 / 안혜윤 초연

“Abschiedsgeschenk” for Daegeum and Percussion <Bangmul-ga>  
대금/김규환 타악/최영진  
무용/이별 (Leaving) : Choreography by Jeanne Travers (Performed by Robert Kelly and Gabriella Olsen)

방물가는 사랑하는 남녀가 이별하는 내용으로 한양으로 떠나는 사내는 이별을 거부하는 여인에게 여러가지 방물을 주어 타으려 하지만 여인은 물건보다 사랑이 더 소중하다며 하소연을 한다. 나는 이 곡에서 하소연 하는 여인의 울부짖음과 흐느낌을 대금으로 표현하고자 하였고 사내가 제시하는 여러가지 방물을 타악기의 소리로 묘사하고자 하였다.

## 9. 아쟁, 태평소, 타악을 위한 &lt;적벽가&gt;

작곡 / 임재경 초연

“Jeokbyeokga” for Ajaeng, Taepyeongso and Percussion  
 소아쟁/박영신 태평소/연홍관 타악/최영진

경기 십이잡가의 하나인 적벽가는, 중국의 소설 ‘삼국지연의’ 내용 중 적벽대전을 취재한 것이다. 10만대군과 함께 승리를 자신하며 전쟁을 시작했던 조조는 적벽 전투에서 크게 패하여 화용도(華容道)로 도망하게 되고, 이 곳에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구차스럽게 잔명을 비는 광경부터 관우의 덕으로 겨우 목숨을 건져 빠져나가는 부분까지의 내용을 엮은 것이다. 조선 후기부터 우리나라 민속악의 주요 소재로 자리 잡으면서 판소리, 창극, 잡가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이번 작품에서는 전투의 부분과 쓸쓸한 독백의 부분으로 나누어 대조적인 면을 부각하였고 아쟁과 태평소, 타악기의 편성으로 작곡하였다. 국악의 장단과 서양음악의 소음적 효과를 이용하여 동서음악이 혼합되는 현대적인 적벽가로 재구성하였다.

## 10. 해금과 타악, 소리를 위한 &lt;십장가&gt;

작곡 / 이애련 초연

“Shibjang-ga” for Sori, Haegeum and Percussion  
 판소리/김경현 해금/신숙경 타악/황삼열

이 곡은 소리, 해금과 타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금과 타악기 그리고 소리의 전통과 현대의 다양한 주법과 장단을 사용하여 한국의 음악을 표현하기 위한 곡으로 작곡하였다. 십장가(十杖歌)는 경기지방의 12잡가 가운데 하나로, 판소리 춘향가 중 한 대목인 ‘십장가’를 경기잡가 양식으로 부른 것이다. 춘향이가 신관 사또의 수청 대령을 거역하여 형틀에 배고 모진 매를 맞게 되는데, 매 한 대에 노래 하나씩, 숫자를 머리에 붙여 가사가 이어진다. 매를 맞으며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겠다는 춘향이의 절개를 담고 있는 내용으로 판소리로 새롭게 재해석 하여 본다.

하나맞고 하는말이 일편 단심 춘향이가 일종지심 먹은마음 일부중사 하겠더니  
 일각일시 낙미지액에 일일칠형 무함일고...

## 11. 대금과 아쟁, 장구를 위한 &lt;형장가&gt; - 옥에 갇힌 춘향 노래

작곡 / 박윤경 초연

“Hyeongjang-ga” for Daegeum, Ajaeng and Janggu  
 대금/김백만 소아쟁/박영신 장구/황삼열

“형장가”는 <춘향가>중 신관사또가 수청 들지 않는다고 춘향이를 매질하게 하는 대목과 그것을 보고 불쌍해하는 구경꾼들의 동정, 춘향의 굽힘 없는 수절을 노래하는 부분이다. 주요음계는 원곡처럼 “G3, A3, D4, F4, G4, A4”의 6음을 사용하고, 서도소리 음계처럼 그 중 G3, D4, F4의 3음(중심을 D4)을 주로 사용하였다. 장단은 처음 도드리로 나가다가 뒤에 세마치로 바뀌어진다. 가사의 첫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형장(刑杖) 태장(笞杖) 삼(三) 모진 도리매로 하날치고 짐작(斟酌)할까 돌을 치고 그만둘까/삼십도(三十度)에 맹장(猛杖 : 매를 몹시 침)하니 일촌간장(一寸肝臟) 다 녹는다/길렀구나 길렀구나 일등춘향이 길렀구나/사또분부 지엄하니 인정일랑 두지 마라/국곡투식(國穀偷食 : 나라의 곡식을 훔쳐 먹음) 하였느냐 엄형중치(嚴刑重治 : 엄한 형벌로 중히 다룸)는 무삼 일고/살인도모 하였느냐 항쇄족쇄(項鎖足鎖 : 목에 칼을 씌우고 발에 착고를 채움)는 무삼 일고……. 이 곡에선 춘향의 굳은 의지를 가사 대신 아쟁으로 노래하였다. 대금과 장구는 그 상황을 표현하며 나아간다. 인생의 희노애락(喜怒哀樂)과 애증(愛憎)의 감정을 장단의 변화와 함께 세 악기로 표현하고 있다.

## 12. 소리, 대금, 피리, 대아쟁, 가야금, 25현금과 장구를 위한 “신매화타령” &lt;달거리&gt;

작곡 / 김은혜 초연

<Sin Maewha-Taryoung>  
 민요/김진찬 대금/문응관 아쟁/길유빈 피리/연홍관 가야금/이해정 25현금/이지연 장구/길석근  
 무용/모자이크 (Mosaic) : A structured Improvisation created by Jeanne Travers (Performed by Robert Kelly, Gabriella Olsen and Jeanne Travers)

12잡가 중 마지막 곡인 ‘달거리’는 각 달의 특징과 남녀 간의 사랑, 자연 풍광을 노래한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부분은 1월에서 3월까지를 세마치장단으로 노래하고, 두 번째 부분은 남녀 간의 사랑을 도드리장단으로 노래한다. 마지막 부분은 사랑과 자연을 굿거리장단에 맞춰 흥겹게 노래한다. 조선의 기녀 ‘매화’의 이름을 따서 남녀 간의 정을 풍자적으로 그린 일명 ‘매화타령’이라고도 하는 이 부분을 소리(남창), 대금, 피리, 대아쟁, 가야금, 25현금과 장구의 편성으로 새롭게 작곡하였다. 굿거리장단을 바탕으로 하며, 기존의 가사를 그대로 사용하여 제목을 ‘신 매화타령’이라 하였다. 구조는 4개의 느린 노래와 4개의 후렴구로 구성된 론도형식을 택하였으며, 후렴구는 기존 민요선율을 사용하였다.



## Jeanne Travers

Jeanne Travers 교수는 현재 University of South Florida 연극무용학과에서 현대무용, 안무 및 다양한 춤 수업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녀는 UC Santa Cruz 무용학과에서 학부를 마쳤으며 University of Utah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MFA과정을 마쳤다. 그 후 그녀는 오스트레일리아, 볼리비아, 중국, 에콰도르,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트리니다드, 튀니지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서 강의 및 무용 안무를 하였으며 USF와 중국 북경대학교의 무용 교환 프로그램을 설립 및 주관한 바 있다. 또한, 그녀의 안무는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를 포함한 여러 대륙에서 공연되었으며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에콰도르의 프라그멘토스 데 후니오 댄스 페스티벌, 이탈리아의 셀레브라지온 페스티벌, 튀니지의 엘 템 국제 페스티벌, 프랑스 파리의 Dejazet 극장, 볼리비아의 Ties of Friendship 국제 댄스 페스티벌, 그리고 중국 베이징의 세계 무용 세미나 같은 유수의 곳에서 발표되었다

Jeanne Travers is a Professor within the School of Theatre and Dance at the University of South Florida where she teaches Contemporary Modern Dance, Choreography and other dance related courses. She received her BA in Dance from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ta Cruz and her MFA from the University of Utah where she graduated with honors. Her choreography has been presented in North America, South America, Europe, Asia and North Africa. She has also been a guest teacher in Australia, Bolivia, China, Ecuador, France, Italy, Germany, Trinidad and Tunisia. Jeanne is also the Co-founder/Coordinator of the USF/China Dance Exchange Program between USF and Beijing Normal University in China. Her work has also been presented in significant venues such as the Edinburgh Fringe Festival in Scotland, the Fragmentos de Junio Dance Festival in Ecuador, the Celebrazione Festival in Italy, the El Djem International Festival in Tunisia, the Theatre Dejazet in Paris, France, the Ties of Friendship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in La Paz, Bolivia, the International Choreographer's Collective in Trinidad and at International Dance Seminars in Beijing, China.



## Gabriella Olsen

Gabriella Olsen 은 University of South Florida 연극무용학과에서 학사학위를 받았으며, 부전공으로 경영학을 공부하였다. Gabriella 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International Creative Dance Seminar 에서 공연하였고, 최근에는 the Dance in Paris Program에서 학기를 마쳤으며, 이곳에서 세계적인 댄서들과 함께 작품을 발표하였다. USF를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장학금을 수여 받았으며, 지금은 플로리다에서 후학 양성 및 작품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Gabriella Olsen is a recent graduate of the School of Theatre and Dance at the University of South Florida, where she received a Bachelor of Arts Degree in Dance and a minor in Entrepreneurship Studies, Gabriella performed in the International Creative Dance Seminar in Beijing, China and recently completed a semester abroad with the Dance in Paris Program, where she had the opportunity to work with numerous internationally renowned dance artists. She is the recipient of several talent awards from USF and is currently teaching and performing in Florida.



## Robert Kelly

Robert Kelly 는 University of South Florida의 연극무용학과에서 학사학위를 받았으며, 많은 장학금을 수여받았다. Robert 는 Derrick Minter, Robert Moses, Alonzo King을 비롯한 많은 아티스트들과 함께 작품 활동을 하였으며, 트리니다드의 Choreographer's Collective (COCO) Festival과 중국 베이징의 the International Creative Dance Seminar에서도 공연을 하였다. 그는 현재 플로리다 탬파에서 Moving Current Dance Collective와 협업하고 있으며, 탬파베이 지역에서 후학을 양성 중이다

Robert Kelly graduated with a Bachelor of Fine Arts degree in dance from the University of South Florida. While at USF, he was the recipient of numerous talent grants. He has worked with Derrick Minter, Robert Moses, Alonzo King, and others. He has performed internationally at the Choreographer's Collective (COCO) Festival in Trinidad and at the International Creative Dance Seminar in Beijing, China. He currently performs with Moving Current Dance Collective in Tampa, Florida and teaches dance within the Tampa Bay a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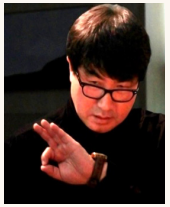
## 1, 길석근 Gil, Seok Geun

작곡가 길석근은 추계예술대학교 국악과와 용인대학교 예술대학원 국악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과 국립국악원 정악단에 입단하여 활발한 연주활동과 작곡활동을 해왔다.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을 이수하였고 사단법인 화성두레농악 보존회의 부회장 및 예술 총감독을 맡으면서 화성 두레농악의 발전과 부흥에 일조하였으며 우리가락교육연구회 회장, 추계예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남대학교 음악과의 겸임교수로 제직중이며 동서악회 부회장으로 취임하고 있다.



## 2, 심유주 Yujoo Shim

작곡가 심유주는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를 졸업한 후, 미국 시카고 아메리칸 컨서버토리(American Conservatory of Music)에서 작곡 석사(MM)와 박사(DMA)를 졸업하였다. 또한 Northwestern University에서 Dr. William Karlins 교수에게 사사를 받았으며 작곡박사(DMA)를 수료하였고, Chicago Young composer 프로그램 scholar로 뽑혀 작곡가 피에르 블레즈(Pierre Boulez)에게 사사 받았다. 중앙대 강의전담교수 및 충남대, 숙명대, 명지대를 역임하였고, 현재 아시아 작곡가 연맹, 창악회, 한국여성작곡가회, 대전현대음악협회(DCMA), 한국동요작곡가협회 이사, 동서악회 등의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백석대, 칼빈대, 중소기업진흥원 CEO 아카데미에 출강 중이다.



## 3, 이진우 Lee, Gene Woo

작곡가 이진우는 조선대학교 음악교육학과 와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음악전공(작곡)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1년부터는 미국의 Boston에 위치해 있는 New England Conservatory of Music 에서 석사(Master of Degree)를 받았으며 Boston University의 Doctor of Arts를 1년 수료 후 귀국하여 국내외의 유수의 교향악단과 앙상블에 의해 작품을 발표하며 활발히 활동중이다. 현재는 TACM(한.중.일 작곡가회) 음악감독, Chamber Ensemble "Logos" 음악감독, Taiyuan Nomal University 객좌교수, Hong Kong International Violin & Piano Competition 심사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4, 김수혜 Kim, Sue Hye

작곡가 김수혜는, 서울예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B.A.)와 동 대학원(M.A.)을 졸업한 후, 프랑스 파리국립고등음악원 (Conservatoire National Supérieur de Musique et de Danse de Paris) 오케스트레이션과와 작곡과를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수석 졸업(PRIX)하였다. 그 후, 도미하여, 미국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에서 음악이론과 작곡전공으로 박사학위(Ph.D.)를 취득하였다. 국내외의 다수의 콩쿠르 입상 및 국내외 음악제에 참가 및 초청 되어 다수의 작품이 위촉 연주 되었다. 제6회 ARKO 한국창작음악제에 오케스트라 작품 <화광동진 for Orchestra> 이 당선되어 KBS 교향악단에 의해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연주되었으며, <Quintette pour Flute, Clarinette, Violon, Violoncelle et Piano> 으로 2016년 제35회 대한민국 작곡상 실내악 부문 우수상을 수여하였다.



## 5, 최영아 Choi, Young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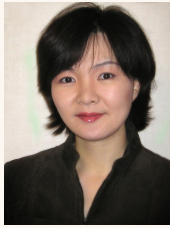
최영아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을 수료, 독일 자르뷔텐 국립음대에서 작곡을 전공하고 졸업하였으며, 국민대, 서울대, 성신여대, 추계예술대, 충남대 등의 대학에서 강사를 역임하였다. 현재 윤지회, 동서악회등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예술의 전당 음악영재아카데미, 명지대, 한국교원대에 출강하고 있다.



## 6, 이복남 Lee, Boknam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B.A.) 및 동대학원을 졸업(M.A.)하고 미국 러거스대학(Rutgers Univ.)에서 작곡으로 박사학위(Ph.D.)를 취득하였다. 미국 University of North Texas와 UC Davis에서 research scholar를 역임하였다. 4회에 걸친 작곡발표회를 비롯하여 서울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회(2000, 한국 문예진흥원 후원작), Black Sea Summer Festival, 아시아 현대 음악제, 맨해튼 챔버 오케스트라 초청 연주회, 러거스 타악기 앙상블, 세계 여성 음악제, 뉴질랜드 한국 음악 축제, 북경 현대 음악제, 영국-한국 교류 현대음악회, 히로시마 동아시아 국제현대음악제, 모스크바 국립 차이코프스키 음악원 주최 제5회 국제음악제, 교토 Clumusica Concert:아시아 관현의 현재 등 국내·외의 여러 음악제에서 작품이 초청 연주되었다. 2010년 이후에는 한국전통음악의 장단과 서양악법의 결합을 통한 현대적 감각의 예술적 작품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작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현재, 명지대학교 교수, (사)한국작곡가협회 이사장, 동서악회 회장, 한국예술가곡연합회 부회장, 윤지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7, 정현수 Chung, Hyun-Sue

작곡가 정현수는 서울대학교 작곡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King's College, University of London에서 박사(Ph.D.)를 취득했다. 제35회 서울창작음악제, 제23회 대한민국작곡상 실내악부문을 수상하고 2009 ISCM(국제현대음악협회) 스웨덴 세계음악제에 입선하였으며 추계예술대학 겸임교수, ISCM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광주문화재단 정책자문위원, 페스티벌 오!광주 정음성국제음악제 프로그래밍선정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영국 Cheltenham festival, 아일랜드 Galway Season Concert, 일본 East-Asian Music Festival, 대만 카오슝 현대타악기 예술제, 독일문화원 새마당 창무회 현대음악과 무용의 만남 외 국내외의 유수의 페스티벌과 앙상블에 의해 작품이 연주되었다. 현재 전남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앙상블루미나시아 음악감독, 뮤직노마드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8, 안혜윤 Ahn, Hye Yoon

추계예술대학교 작곡과 졸업, 독일 자브뤼켄 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과정 Konzertexamen 취득 후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음대 Postgraduate 과정을 최고점으로 졸업하였다. International electronic Music Concert, Duo Concert, 21. Wiener Tage der zeitgenössischen Klaviermusik 등 독일 자브뤼켄, 오토바이리, 록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비엔나, 홀라브룬의 현대음악제에서 연주하였으며 2013 Mauricio Kagel Composition Competition 입상, 전주 현대음악제, 광주 피아노 아카데미 주최 피아노 창작곡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현재 동국대 음악원에 출강중이며 동서악회, ISCM, ACL-Korea, 창악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 9, 임재경 Jaekyung Lim

작곡가 임재경은 서울대학교 작곡과를 졸업하고, 독일 Saarbruecken 국립음대에서 작곡을 전공하여 Diplom을 취득, 이후 오스트리아 Wien 국립음대에서 작곡 및 이론 전공으로 1.Diplom을 졸업하였다. 작곡으로는 Theo Brandmueller, Periklis Liakakis 를 사사, 이론으로는 Annegret Huber, Dieter Torkewitz, Gesine Schroeder를 사사하였다. 독일, 오스트리아, 중국 등 여러 지역에서 작품이 연주되었고 (사)한국작곡가협회, 창악회, 동서악회, 음악동인 명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전남대, 숙명여대, 명지대, 가천대, 동국대, 예원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 10, 이애련 Aelyun Lee

작곡가 이애련은 숙명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중국 Central Conservatory of Music에서 작곡으로 박사학위(Ph.D)를 취득하였다. 2011년 중국 우한음악학원에 초청되어 <이애련실내악작품초청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05, 2008 중국 북경현대음악제, 2008년 제36회 범 음악제, 2010, 2011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 2013 2014 2016 2017 창악회 한 중 교류음악회 <동방기원>, 2015 대만 Taipei 작품발표회, 2016 ACL-한국 국제음악제 등 다수의 작품을 발표 하였고, 2009 대구국제현대음악제, 2011 사단법인 한국여성작곡가회 30주년기념 국제현대음악제, 2014, 2015 일본 히로시마 동아시아음악제, 2016, 2017 대만 Kaohsiung 현대타악기예술제, 2013, 2015 구로구립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에서 위촉 작품을 발표하였다.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기독교음악예술원 교수, 목포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겸임교수, 서울신학대학교에 출강하고 있으며 한국작곡가협회 이사, 중국 Wuhan Conservatory Of Music 객좌교수이다.



### 11, 박윤경 Park, Yoon Kyung

작곡가 박윤경은 서울대 작곡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뉴욕시립대학교에서 석사학, 럿거스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학 재학 중 창악회 콩쿠르 대상을 시작으로, 팬 뮤직 페스티벌, 대전 현대 음악제 등에서 연주하였고, 2007년 뉴욕 Merkin Concert Hall에서 “Winter Overture for Orchestra”로 데뷔 후 뉴욕, 뉴저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2015년에 귀국, 현재 서울대, 단국대, 명지대에 출강하고 있다.



### 12, 김은혜 Kim, Eunhye

작곡가 김은혜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에서 학사 및 석사학, 프랑스 파리 소르본에서 음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서울 국제음악제와 교향악 축제 등에서 작품 위촉발표를, 국외에서는 프랑스, 독일, 이태리, 미국, 일본,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작품을 발표해왔다. 김은혜의 최근 관심사는 한국적 요소와 서양의 요소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있다. 그중, 피아노 모음곡 <십이지>는 2008년 대한민국 작곡상을 수상하였다. 작곡가 김은혜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수원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미래의 음악가가 될 학생들을 지도하며 어린이를 위한 음악에 관심을 기울이고,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주제를 사용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려 한다.

## 동서악회 회원



**김성욱/해설**  
전, 국악방송 편성제작부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책임심의위원  
현, 국악방송 MC 및 객원PD  
추계예술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최영아/타악**  
명지대학교 출강



**이복남/타악**  
명지대학교 교수



**김은혜/타악**  
수원대학교 교수



**김규환/대금**  
추계예술대학교  
교육대학원 수료



**박영신/아쟁**  
오리엔탈 어쿠스틱밴드  
Nollflower 멤버



**문응관/대금**  
국립국악원 지도단원



**이해정/가야금**  
경기가야금양상블대표



**연홍관/피리**  
서울시무형문화재 제57호  
제44호삼현육각 피리전수자



**황삼열/타악**  
예술단 진천하 대표



**이지연/가야금**  
명지대학교 강사



**길석근/타악**  
추계예술대학교,  
영남대학교 겸임교수

## 객원



**이필경/타악**  
단국대학교 국악과 재학



**이유정/타악**  
국립국악학교 강사



**김진찬/민요**  
한국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



**신숙경/해금**  
어울림국악관현악단  
해금단원



**이기훈/첼로**  
Wonder Cello Ensemble 단원,  
Chamber Ensemble "Logos" 첼로Principal



**김백만/대금**  
중요무형문화재 제20호  
대금정악 이수



**이신애/아쟁**  
경기도립국악단 수석



**최수안/민요**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전수자



**최영진/타악**  
월드뮤직그룹  
이스티녹스 음악감독



**김경현/판소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  
악과 대학원 재학



**길유빈/아쟁**  
단국대학교 국악과 재학



**김소라/판소리**  
국악양상블 너울소리 대표

## 동서악회 임원

회장 : 이복남    부회장 : 길석근  
 감사 : 김광희  
 이사 : 김수혜, 이애련, 이해정, 황삼열, 안혜윤  
 고문 : 김정수, 김혜자, 안병선

## 동서악회 연혁

- 2009년 5월      동서음악연구회 발족
- 2009년 12월 4일    동서악회(The Society for East-West Music) 창립총회
- 2011년 1월20일    동서악회법인등록
- 2009년 10월10일   제1회 학술포럼 : Microtonal music in America  
아르코예술정보감상실 심포니
- 2010년 10월 7일    제2회 학술포럼 : Sofia Gubaidulina - 명지대학교 60주년기념관
- 2011년 3월 9일      창단연주회 - 대한민국실내악제전 “우리가락 현대路 가다”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 2011년 6월 17일    제3회 학술포럼 : 아프리카의 리듬과 한국의 리듬 비교  
양재동 우리가락연구회
- 2011년 8월 17일    The Vth Internatinal Music Festival: “We Gather Friends”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음악원 라흐마니노프홀
- 2011년 8월 17일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음악원 초청세미나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음악원 컨퍼런스홀
- 2011년 11월 1일    현대국악양상블 굿모리 제3회 정기연주회 “다매체음악회”  
대구우봉아트홀
- 2012년 9월 20일    동서악회 제2회 정기연주회 - 국악실내악단 “청유” 초청 한·일교류음악회  
용인문화재단 마루홀
- 2013년 2월 19일    제4회 학술포럼 : 오르간음악 - 신촌성결교회 아천홀
- 2013년 5월 25일    International Contemporary Music Festival  
“Present of Orchestral Asia(아시아의 관현악의 현재)”  
교토시립예술대학홀
- 2013년 10월 26일    어린이합창극 “꽂지땀발 주둥이땀발” -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 2013년 11월 12일    동서악회 제3회 정기연주회 “중국성해음악학원 초청 - 한중교류연주회”  
용인문화재단 마루홀
- 2014년 2월 11일    제5회 학술포럼 : 정가  
양재동 우리가락연구회
- 2014년 7월 3일      중한작곡가음악회 - 중국광저우 성해음악대학 대강당
- 2014년 11월 12일    동서악회 제4회 정기연주회 화성두레보존회와 함께 하는  
“우리가락 세계路 날다” - 용인여성회관 큰 어울마당
- 2015년 11월 19일    동서악회 제5회 정기연주회 “가락나들이” - 용인문화재단 마루홀
- 2016년 4월 16일    제6회 학술포럼 : 정가와판소리 - 양재동 우리가락연구회
- 2016년 9월 29일    동서악회 제6회 정기연주회 우리가락 Project 여섯번 : “소릿가락”  
한국문화의집 코스
- 2017년 2월 6일      제7회 학술포럼 : 경기12잡가 - 국립국악원연수동
- 2017년 9월 19일    동서악회 제7회 정기연주회 현대음악과 춤으로 풀어낸 경기12잡가  
“춘향연가” - 용인포은아트홀

제7회 동서악회 정기연주회  
The 7th Annual Concert : The Society for East-West Music  
우리가락 project 일곱 번째

현대음악과 춤으로 풀어낸 경기12잡가

# 중향연가

2017년 9월19일 (화) pm 7:30

용인포은아트홀

주최·주관 (재)용인문화재단·동서악회(The Society for East-West Music)

후원 (사) 한국작곡가협회·우리가락교육연구회